

VOL.

CHINA

Analyst
김선영



01 OPTION

중국현지 BEST 기사로 보는 중국의 오늘

02 OPTION

무역분쟁 장기화 고려, 이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 시키려는 중국

03 OPTION

현지 목소리(컬럼)

I. 중국현지 BEST 기사로 보는 중국의 오늘.....	3
1. 20 개의 선물꾸러미가 열린다.....	4
2. 밤(夜)경제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11
3. 문화와 여행소비 확대를 위한 9 가지 방안.....	12
4. 저축률이 줄었다고? 위어바오와 화베이를 보자.....	15
5. 돼지님 모시기.....	16
6. 증시에 대한 정부의 입장.....	17
7. 무역분쟁 중이지만, 미국기업들은 대박난다.....	18
8. 기타.....	19
II. 무역분쟁 장기화 고려, 이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 시키려는 중국	21
무역분쟁 장기화 고려, 이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 시키려는 중국.....	22
III. 현지 목소리(컬럼).....	25
[사설 1] 부동산 시장에 대한 중국의 생각 [9/2 예탄].....	26
[사설 2] 무역분쟁에 대한 중국의 생각 [9/2 인민일보].....	28





I

중국현지 BEST 기사로 보는
중국의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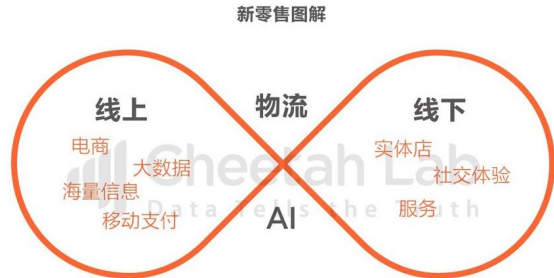
1. 20개의 선물꾸러미가 열린다

[#소비, #신유통, #자동차 사 #밤에놀아, #휴일 늘려줄게, #노점상확대, #외국명품]

- 8/27 国务院办公厅

1. 신유통 보급 가속화

가장 먼저 신유통을 전국화 시킬 예정이다. 특히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인터넷 등의 IT 기술 사용을 장려하여 문화적인 요소들이 어우러진 맞춤형 소비를 생산할 것이고, 맞춤형/스마트형/정보형/트렌드형의 다양한 상업적 소비 모듈을 양성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구환신, 자원순환 소비 사이클을 형성할 것이다. 그리고 신유통 모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격한 관리 감독을 동반할 예정이다. (발개위, 공신부, 생태환경부, 상무부, 문화여행부, 시장감독총국, 체육총국 담당)



2. 기존 유통기업의 혁신 및 업그레이드

기존의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신개념, 신기술, 새로운 디자인을 지원하여 시각적이고 체험적인 종합형 소비장소로의 변환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존의 백화점이나 대형 체육관, 오래된 공업부지 등을 개조하여 상업센터, 소비체험센터, 헬스케어 및 유흥센터 등의 기능적인 소비 매체가 되도록 격려할 예정이다. 정부는 도시계획조정, 공공시설 인프라 부대설비, 건축용 부지의 개발 보장 등의 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신부, 자연자원부, 주택도향건설부, 상무부, 체육총국 담당)



3. 보행자거리를 만들자

지방정부는 보행자거리의 기초시설, 교통설비, 인터넷 플랫폼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모든 것들을 데이터화시켜 관리할 것이고, 공공의 안전에 부합한다는 전제 하에 조건에 부합하는 상업 거리에서 야외 영업판매를 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행자거리는 전국적으로 시범지역을 지정할 것이다. (주택도향건설부, 상무부, 시장감독총국 담당)

4. 편의점 지점 확대

우선 가장 큰 전제가 식품안전 보장이다. 그리고 각 지역 편의점의 스마트화와 브랜드화를 도시 공공서비스 시설 체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편의점 체인점 본사의 관리책임 강화/ 지점 확대/ 영업 전 소방안전 검사 / 통지 관리 실행 간소화 등 행정을 간소화시키고 서비스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평판부 정책을 따른다.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심사 비준은 본부가, 일지 기록은 지점'하도록 하며, 방 조건에 부합하는 브랜드 편의점의 "영업면허 한 장으로 여러 지역에 등록(一照多址)" 할 수 있는 시범 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편의점을 체인화시키는 전략이다. (주택도향건설부, 상무부, 응급부, 시장감독총국, 신문출판서, 연초국, 약품감독국 담당)

5. 사회 편의 서비스 시설 최적화

인터넷+사회 서비스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사회 생활서비스센터를 신축/개조할 예정이다. 지역사회교육, 문화, 의료, 노인복지, 가사관리, 체육 등의 생활서비스 시설을 건설하고, 조건에 부합한 지역을 도시 낙후지역의 재개발 범위에 편입하여 재정 지원과 세금 우대 정책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발개위, 교육부, 민정부, 재정부, 주택도향건설부, 상무부, 문화여행부, 위생건강위 원회, 세무총국, 체육총국 담당)

6. 농촌의 유통 구조 발전 가속화

지방도시 중심으로 농촌 유통 서비스 네트워크를 새로 구축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업무의 농촌 커버리지 확대, 택배 서비스와 인터넷 통신망 최적화, 농촌 전자상거래 관련 인재 배양과 발전 수준 향상, 비용 확대 등이 뒷받침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도시 여행상품과 서비스 공급 개선으로 조건에 부합한 지역에 농촌 특색 기반의 휴양, 여행, 관광 등의 소비 시장을 양성할 것이다. (발개위, 재정부, 농업농촌부, 상무부 담당)



7. 농산물 유통 확대

농산물 산지 시장의 체계를 만들어 인터넷+ 정책과 더불어 농산물의 도시 진입을 실행할 것이다. 또한 농산물의 콜드체인 물류를 발전시킬 것이다. 농산물 유통 체계 보완, 농산물의 분류, 가공, 포장, 예비병각 등의 집배시설 일체화를 본격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또한 그린, 생태 상품의 온오프라인 판매 경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발개위, 재정부, 농업농산부, 상무부 담당)

8. 수출 상품의 국내 판매 경로 확대

대내외 판매상품의 '동일한 생산라인, 상표, 품질'이 전제가 된다면, 이를 국내판매시장으로 확대하여 시장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종합 면세(보세) 구역은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 자격 시범장소 확대, 종합 면세 구역 내의 가공제조기업이 역내 구역 외의 위탁 가공업무를 인수하는 정책을 허락하도록 적용할 것이다.

9. 럭셔리 외국상품 소비 수요 만족

해관특수감독구역 내에 면세 교역 플랫폼을 만들어 자유무역실험구와 종합 면세구역 특징과 추세를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시범 도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재정부, 상무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담당)



10. 자동차 소비 잠재력 제고

자동차 차량 번호판 발급 규제를 지역별 상황에 따라 점진적인 완화 혹은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NEV 구매 여력이 있는 지역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또한 중고차 유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 二手车限迁政策(외지 중고 자동차가 지방정부 기준 충족시에만 번호판 획득이 가능했던 정책으로 대부분 번호판 획득 실패를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대기오염 중점 지역에서는 각 지역에서 정한 배기가스 기준에 부합하는 중고차만 성/시 내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공신부, 공안부, 생태환경부, 교통운송부, 상무부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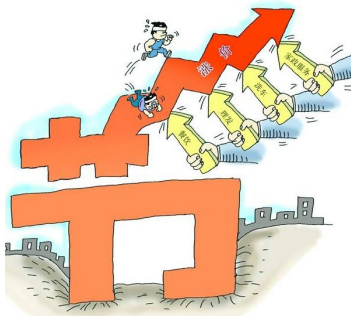


11. 친환경(녹색) 스마트 상품 교환 지원

친환경 스마트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조건에 부합한 유통 기업이 중고 전자 및 전기 제품을 업체에서 매입하고 소비자가 고화질 텔레비전, 에너지 절약형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스마트폰 등으로 구매할 때 할인할 해주는 정책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에너지 절약형, 스마트 전자 제품 및 전자 기기로 교체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조건에 맞는 지역에 관련 상품 판촉행사나 정보 플랫폼, 재활용 시스템 등을 구축해 지원해 나갈 것이다. (공신부, 생태환경부, 상무부 담당)

12. 야간 상업과 시장 활성화

주요 상권 및 특색 상업 거리와 문화, 관광, 레저가 통합되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24시간 편의점, 삼야식당 등 삼야 영업을 하는 상권과 같은 특별 구역을 개설할 것이다. 또한 조건에 부합한 지역에는 자금 투입을 확대하여 야간 소비 풍경과 집중 구역을 조성하고 야간 교통, 안전, 환경, 기타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주택도농개발부, 교통운송부, 상무부, 문화관광부, 응급부 업무 담당)



13. 휴일 소비 공간 확장

일부 조건에 부합한 지역을 이용하여 개방적인 공공 장소로 이용할 예정이다. 휴일에 보행자 거리, 주말 모임, 레저 및 스포츠와 같은 정기적인 소비 장소를 마련할 것이다. 이에 지방정부는 실정에 맞는 장소설비와 교통안전보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도농건설부, 교통운송부, 상무부, 문화관광부, 응급부, 시장감관총국 담당)

14. 브랜드 상품 영업 판촉 플랫폼 건설

국제 소비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 자체브랜드로 하여금 시장의 영향력과 인지도 상승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국내에서 판매되는 국제브랜드 상품과 선진국 시장에서의 판매되는 상품의 품질, 가격, 출시일, 판매 후 처리 등의 방면을 벤치마킹하여 지역별로 조건을 만들어 유명 브랜드의 매장 최초 유치와 신제품 최초 발매 등으로 국내 소비를 확대할 예정이다. 중국의 전통적인 기술과 공예, 브랜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등에도 집중할 것이다. (상무부, 문화관광부, 시장감독총국 담당)

15. 유통기업의 원가 비용 절감

공업용, 상업용 전기세 정책이 개정될 예정이다. 각지방정부는 체인 기업(기업의 계열사들이 종합납세정책을 신청하고 참여하는 것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할 것이다. (발개위, 재정부, 세무총국 담당)

16. 유통 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 격려

연구개발비용의 세전감면정책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또한 국내 생산이 불가하거나 업계에서 기업이 당장 필요로 하는 고성능 물류설비의 수입에 대해 지원을 확대시키고 물류 원가를 인하하도록 할 것이다. (발개위, 과기부, 재정부, 상무부, 세무총국 담당)

17. 가공유의 시장 진입 확대

석유 가공유 도매 저장창고 경영 자격의 심사를 취소하여 가공유의 소매 경영 자격 심사를 지방인민정부급의 하급 기관으로 이관시킬 예정이다. 이에 소규모 지방 도시의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에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등의 저장용으로 단체 사용이 가능한 건설 부지를 설립하여 가공유 시장 소비를 확대시킬 것이다. (발개위,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주택농촌건설부, 교통운송부, 상무부, 응급부, 해관총서, 시장감독총국 담당)

18. 재정자금 정책 보완

중앙의 재정서비스 업무 발전 자금 등 현재 보유한 특정 항목의 자금 혹은 정책을 사용하여 유통 영역의 단점을 보완하기 나감 예정이다. 각 지역에 맞게 유통 혁신 발전과 소비 확대 촉진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재정부, 상무부 담당)

19. 금융 지원 강화

금융기관은 소비자가 NEV, 친환경 스마트 가전 등 환경친화적이고, 스마트한 제품을 구매하게되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서비스 등을 강화해 신규 소비 카테고리의 금융 서비스 지원을 확대시킬 것이다.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업무 담당)

20. 시장 유통 환경 개선

소비 신용 시스템 확립을 통해 주요 제품 온오프라인 트래킹 시스템을 설립하여 1)가짜 상품 판매, 허위광고 등 온오프라인 위법 행위 근절 2)식품, 약품, 자동차 부품, 가전 등의 품목에 대해 시장관리감독 강화 3)자동차, 플랫 패널 TV 등 품목의 수리, 교환, 환불, 관련 규정 수정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발개위, 공신부, 공안부, 농업농촌부, 상무부, 응급부, 해관총서, 시장감독총국, 약품감독국 업무 담당)



Kim's 코멘트

드디어 나왔다. 국무원이 그동안 이것만큼은 안된다며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았다. 바로 자동차 정책이다. 특히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에 보조금을 지원해왔던 것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던 기존의 정책을 뒤집는 수준의 정책이다. 이번 소비촉진 정책의 발표시점이 우리가 그동안 예상했던 '지금 이 시점'이라는 점에 주목하자. 바꿔말하면, 그만큼 경기는 안좋은 상황이라는 점과 중국정부는 여전히 70주년 잔치를 성대하게 열기 위해 준비중이라는 점이 공식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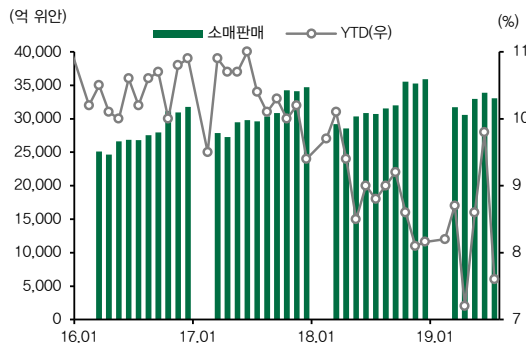
우리는 이번 20개 소비부양정책 중 크게 4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각 산업의 향후 방향성을 보여주는 키가 될 것이다.

1. 자동차 소비

: 현실적인 측면에서 자동차 구매 제한 정책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특정 조치를 모색하려 한다는 점이 인상깊다. 이번 조치가 시행시점이나 시행강도가 구체화되지 않아 단기간에 얼마만큼 자동차 구매수요 확대로 이어질지 의문이나, 점차 구매 제한 정책이 폐지로 수렴한다면 1,2선도시 자동차 소비수요에 더할나위 없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애초의 번호판 발급제한 정책이 나타났던 요인이 환경보호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것이어서 완전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듯하다. 이에 중고차 유통 확대나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 확대라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때문에 이번 정책을 보다 보수적으로 판단해 보면, 자동차 수요의 바닥다지기를 할 수 있는 시점 정도로 판단된다. 최악의 상황은 지나가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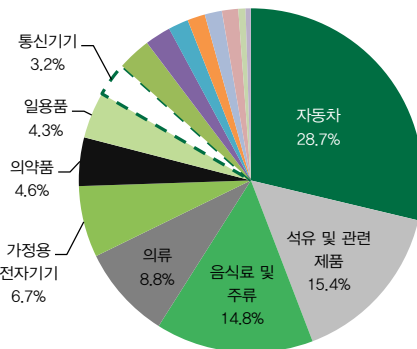
이번 국무원의 정책과 함께 각 성/도시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정책이 언급되고 있다. 광둥성에서는 이미 자동 추첨과 입찰 규제를 완화할 것을 준비중이고, 구매가능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광저우와 심천지역에서 이를 따를 것이라 언급했다. 광둥성을 시작으로 조만간 각 지방도시별로 구매제한 완화 정책이 연이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껏해야 신재생 자동차 정책이 언급될 것이라는 컨센서스와는 달리, 이번 '구매 제한 폐지' 언급으로 사실상 자동차 정책이 전체 정책의 톤을 살린 느낌이다.

또 다시 7%대로 내려온 소매판매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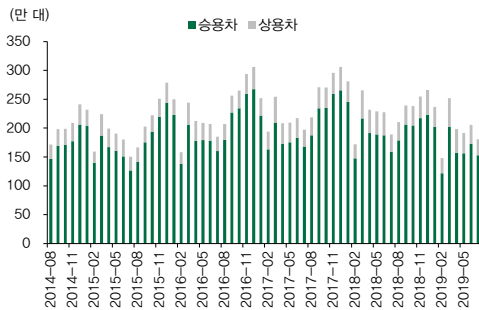
자료: WIND, DB금융투자

규모이상 소매판매 기업들의 항목별 소비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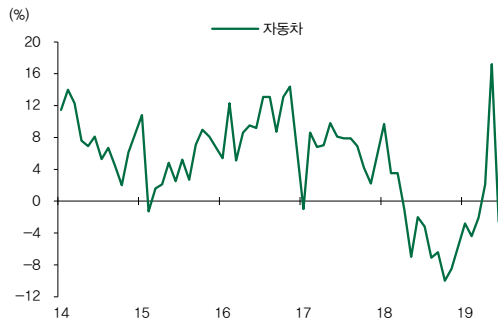
자료: WIND, DB금융투자

자동차 판매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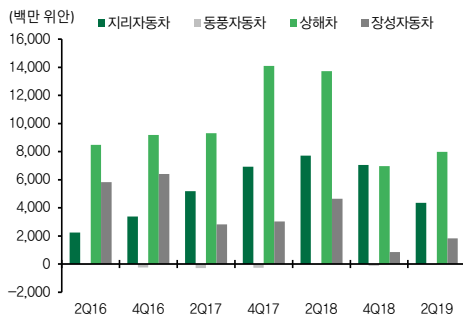
자료: WIND, DB금융투자

소비문화의 일등공신(?) 자동차 판매 증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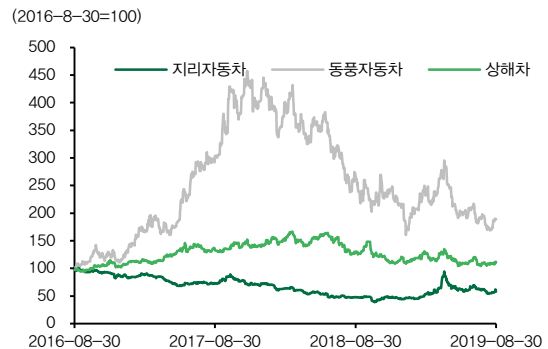
자료: WIND, DB금융투자

관련 기업 반기실적



자료: WIND, DB금융투자

관련기업 주가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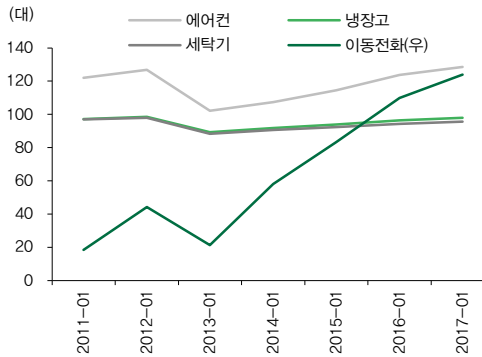
자료: WIND, DB금융투자

2. 친환경, 스마트 가전 소비

: 어쩔 수 없이 자동차 규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하긴했으나 친환경 소비 기조는 꾸준히 유지한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중국에서 처음으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시작되었고, '재활용'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번 정책에서도 출현했다. 중고전자제품 재활용이 언급된 것이다. 소비자가 사용하던 물건을 업체에서 매입하고, 에너지 절약 및 스마트 전자/전기 제품을 할인 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트레이드인(Trade-in)정책도 출시되었다. 올 초 언급된 가전소비부양 정책보다 좀 더 구체화된 정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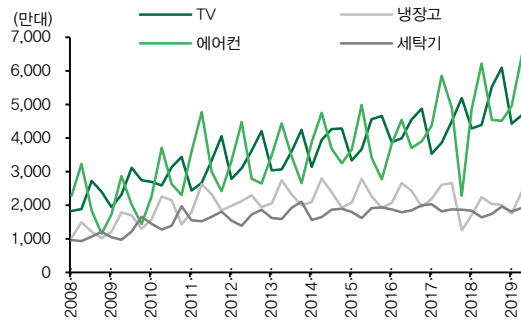
전체 가전 시장의 관점에서 트레이드인은 폭발적인 소비 잠재력을 소비로 이끌 수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 2017년말 기준 중국의 100명당 휴대전화 보유대수는 235.4대, 100명당 에어컨 보유대수는 128.6대, 냉장고 보유대수는 100명당 98대, 세탁기는 95.7대로 이미 포화상태다. 이에 신규 성장잠재력보다 이구환신 정책이 훨씬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가전/IT 산업경제 학자 Liang Zhenpeng은 트레이드인으로 중국의 가전과 스마트폰 매출은 2천억 위안 이상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100명당 가전 제품 보유대수



자료: WIND, DB금융투자

분기별 가전제품 판매량



자료: WIND, DB금융투자

3. 농산물 유통 확대

: 농산물의 콜드체인 물류개발을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일본 및 유럽 국가의 농산물 냉장 운송 비율이 80~90%인 것에 비해 중국은 10~20%에 불과하다. 절강대학 중국 농촌 개발 연구소의 쉬쑤추 교수에 따르면, 과일 및 채소, 축산물, 수산물 등 중국의 콜드 체인 물류 거래량은 연간 20%이상씩 증가하고 있는데, 시스템 부족으로 인해 과일이나 채소의 연간 손실이 수조 위안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콜드체인 물류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야간경제와 휴일경제

: 지난자료에서도 '북경시의 방문객 소비 확대 정책'을 대대적으로 다루었듯이 중국의 소비 키워드 중 하나로 '야간경제'라는 단어가 자리매김 중이다. 특히 대도시의 야간경제는 무시할 수 없는 소비 모델이 되고 있다. 알리바바가 발표한 알리바바 나이트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소비 중 밤소비(21:00~22:00)가 전체 소비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별지구와 상업지구의 문화, 관광, 레저 등이 거론되고 영업시간 연장과 심야영업 확대, 24시간 편의점 및 심야식당 등이 점차 확대 중이다.

또한 휴일경제도 마찬가지다. 휴일 보행자 거리 확대, 주말 모임 및 레저, 스포츠를 위한 장소 확대 등이 언급되었으며, 지방정부의 주재하에 교통 안전 보장을 기반으로 관련 정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15년 리커창은 '판관푸(放管服) 개혁'을 언급했다. 판관푸란 1)정부 기구 간소화, 2)중앙권력을 하부로 이양, 3)인민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말하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감세정책도 이에 해당한다. 중국정부는 이번 소비확대 정책에서도 판관푸 개혁을 심화시킨다는 전제로 내용들을 발표했다.

위에서 다뤄진 내용 이외에도 중국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요 상권의 영업시간 연장, 프랜차이즈 편의점 확대, 신경제와 맞물려 빅데이터와 시를 활용한 구매 수요 분석 등이 동반될 예정이다. 또한 수출기업들이 내수 시장을 건줄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등도 언급될 것으로 보아 중미무역분쟁의 장기화를 전제에 둔 내수 소비 촉진 정책이라는 해석이다.

2. 밤(夜)경제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알리바바 야간경제 보고서, #배달, #21시 온라인 쇼핑이 가장 활성화 된 시간]

- 7/24 新华网

밤경제 전체 소비의 36% 차지



지난 7월 24일 알리바바는 밤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타오바오 온라인 구매에서 밤9시부터 약 1시간 가량 소비규모가 전체소비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허마셴생,饿了么 등 야간 배달 소비의 성장과 밤공연 문화 소비의 확대도 전체 밤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알리바바의 7억명 이상의 소비자들은 매일밤 밤경제 성장에 기여중이다.

지난 15일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GDP에서 소비의 기여도가 60%를 초과했다. 그 중 밤경제야말로 소비의 새로운 성장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1시부터 22시 까지가 타오바오 거래량의 가장 피크타임이며, 23시부터 3시까지는 티몰에서 가장 비싼 아이크림 판매가 가장 많이 팔리는 시간이다. 또한 그 이후부터는 특급 야간 물류 시장의 피크타임이며, 심천/우한/창사가 야간 택배 수요가 가장 높은 도시로 나타났다.

2선도시에서는 9시 이후 식음료 소비가 가장 빠르게 증가했고, 전체 밤문화 소비가 활발한 10대 지역 중 북경을 제외하고 모두 남쪽도시들이 차지했다. 상반기 20시부터 21시까지는 하루 중 가장 많이 '건강에 소비하는 시간'으로 집계되었고, 알리헬스케어를 통해 건강보조식품 구매가 이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나타났다. 야간 문화 소비 역시 저녁이 핫타임이었다. 19시부터 21시까지가 공연 소비의 최고점이었고, 도시별로는 북경, 상해, 천진, 청두, 항주 등 영화관련 인프라가 가장 많이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다. 한편 21시부터 23시까지는 가족간의 야간 드라마 시청 소비가 피크였고, 수백만명이 Youku에서 <长安十二时辰>라는 드라마를 시청했다.

또한 온라인 상업은행에서 19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의 심야시간 소액대출이 전체 소액 대출의 26%를 차지했고, 22시 이후부터 환경보호 관련 기부금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으로 나타났다.



3. 문화와 여행소비 확대를 위한 9가지 방안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고궁 티켓 못사, #외국인들 모바일페이 곧 편하게 해줄게]

- 8/26 中国经济新闻网, 国务院办公厅

문화와 관광소비... 어떻게 확대 시킬 것인가

국무원 판공청은 지난 8월 말 문화와 여행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목적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지도 하에 문화와 관광 소비 추세에 따라 해당영역의 공급측 구조개혁을 심화하기 위함'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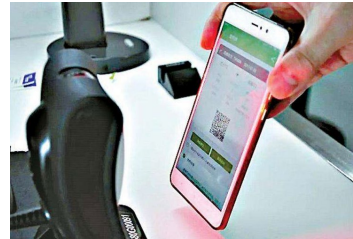
1. 소비 확대를 위한 조치들

:1)국가 소유 관광지의 티켓가격 인하, 비수기 관광지 무료 개방, 공연 티켓가격 할인 2)월간/분기간 소비 촉진의 날 지정, 디지털 체험 활성화 3)문화/관광 소비와 제휴되는 은행 카드 발급하여 특별 상점에서 할인 및 할부 혜택 부여 4)문화/관광 소비를 위한 소액 대출 확대 (문화관광부, 발개위, 재정부, 인민은행, 은보감독 및 지방의 각계 인민정부 담당)

2. 편리화

:1)모바일 지불 시스템으로 전체 변경 2)지역사회 종합생활서비스센터 등 여러 소비장소에서 문화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서비스망 조성 3)전

통공연장소와 박물관에 카페테리아, 휴게실, 창작상품전시판매구역, 서점과 같은 부스 설치하여 소비 환경 조성 4)공연, 오락, 관광 구역 등의 인터넷 발권과 QR코드 검표 유도 5)문화 관광 소비지역에 광대역 이동 통신 인터넷망 보급을 확대하고, 사용자의 수요가 높은 곳에는 우선적으로 5G인터넷망 배치 6)관광교통서비스 최적화, 효율적으로 노선과 정차역 위치 배정을 계획 7)2022년까지 전국 모든 문화관광 소비장소에서 현금지불 이외에 은행카드나 모바일 지불, 인터넷 발권과 4G/5G 보급을 90% 이상 가능하도록 지원(문화관광부, 공신부, 교통운송부, 상무부, 인민은행 담당)



3. 입국여행객(入境 외국과 역외 지역 포함)의 여행환경 향상

:1)기존자료를 토대로 국내 여행 관련 홍보와 소개 플랫폼(앱, 워젯 미니 프로그램 등의 단말기)수준 향상 2)입국여행객 수요에 맞추어 여행노선, 목적지, 여행 및 특색 상품이 홍보 플랫폼상에 추천되도록 개발 3)관광지, 음식점, 숙소, 쇼핑, 유흥, 공항, 정류장 등의 장소에 있는 언어 서비스 업그레이드 4)문화 관광 소비 집중 구역에 은행과 같은 금융 기관 지점 설립 5)입국여행객의 모바일 지불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 편리성 증대 6)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기회로 삼아 입국여행객 관련 정책 조치 촉진(문화관광부, 인민은행, 은보감독, 베이징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4. 소비 시범도시와 모범도시 추진

:1)소비시범도시는 도농민에게 문화소비 시범 사업을 경험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 것 또한 추가로 몇몇 소비시범도시를 만들어 그 중 소비모범도시를 채택하여 심사를 진행 2)소비 시범도시와 모범도시를 국제소비중심 도시로 추진하고 소비집약체로 건설 3) 2022년까지 30개의 모범도시와 100개의 시범도시 건설 목표 4)모범도시 주민의 문화유휴 방면 지출은 전체 소비의 6%가 넘어야 하며 여행수입증가율은 두자리 수 이상이어야 함

5. 풍부한 상품 개발/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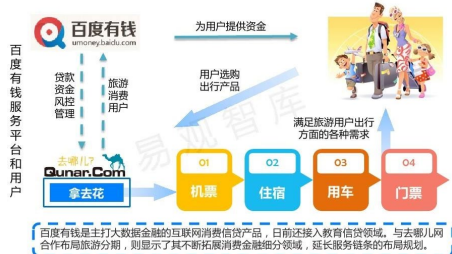
:1)중소형, 테마형, 특색형의 문화관광 공연상품 개발 2)문화 관광장소에 참여형, 체험형 소비 항목 증가. 자유여행, 휴양에 알맞은 임대형아파트와 렌터카 대여 등의 서비스 확대 3)신기술을 이용한 중국 문화 발굴에 집중해 많은 인민들에게 더 많고 다양한 방송 소비 상품 제공할 것. 관련 TV프로그램 확대 4)숙박업의 브랜드화 5)국가급 문화산업 모범구역과 국가문화산업 모범부지의 공급 확대 6)전시와 판매 경로 확대 7)농촌 개발을 통해 휴양지 여행상품 확대 8)국가 전역에 여행모범지구 건설, 테마여행 상품 개발 9) 홍색여행(红色旅游, 중국공산당지도자가 혁명과 전쟁 시기에



이루었던 업적을 기리는 역사적인 장소를 테마로 여행하는 상품)상품 확대 10)2022

년까지 30개 이상의 여행/공연 항목을 만들고 문화 관광의 효율적인 공급 확대 (문화관광부, 발개위, 농업농촌부, 관광총국, 국가임업국 담당)

|去哪儿网接入百度有钱扩展旅游分期业务



6. 여행관광지구 수준 향상 및 규모 확장

:1)각 지역의 여행관광지구 공공서비스시설에 자금을 투입하여 안전을 보장하고 최신식 시설로 교체, 상품 개발 추진 2)관리인 및 서비스직원의 교육 강화 3)특색있는 여행 목적지 제공 4) '인터넷+여행'정책 추진으로 스마트관광지구 설립 5)관광지 티켓 예약 제도로 일일 최고방문객 수 제한 6)2022년까지 5A급 국가소유관광지 예약 제도 실행 (문화관광부, 발개위 담당)

7. 휴일경제와 야간경제 발전

:1)회사 차원에서 직원에게 유동적으로 연차를 발급하는 휴무 제도 착수 2)여행이 집중된 시기의 패턴을 파악하여 고속도로 등의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운행을 실행하고 도로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림 3)주민에 피해가 끼치지 않은 선에서 야간 문화 공연을 늘리고 문화 관광 장소의 야간 식당, 쇼핑, 공연, 24시간 서점 등의 서비스 제공 4)2022년까지 200개 이상의 국가급 야간문화관광 소비집중구역을 건설하고 소비 규모 확대 (문화관광부, 발개위, 공안부, 교통운송부, 상무부 담당)





8. 산업과의 융합 발전

:1)유럽선과 크루즈여행, 무형문화유산 테마 여행 등의 사업 발전
 지원 2)5G, 고화질, AR, VR, AI 등의 신기술과 여행을 결합한 체험형 문화와 여행소비 촉진 3)인터넷 음악, 웹툰, 인터넷 방송, 디지털예술전시 등의 디지털컨텐츠를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가구 등의 상품을 통해 여행상품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결합 4)2022년까지 30개의 국가문화산업과 여행산업을 융합한 발전모범구역 건설 (문화관광부, 발개위, 교통운송부, 상무부, 광전총국 담당)

9. 엄격한 시장 관리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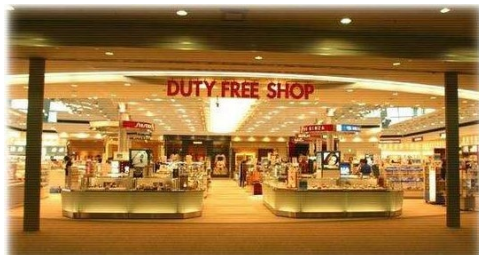
:1)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시장의 안전관리 도모 2)시장과 업계 사람의 신용 기록을 전국 신용정보공유 플랫폼과 국가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에 점진적으로 편입 3)블랙리스트에 들어간 여행시장(여행자)과 시장업계 사람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 4)2022년까지 문화관광시장 질서가 규범화되고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향상, 소비자 권익 보호 향상되도록 강조 (문화관광부, 응급부, 시장감독총국 담당)

Kim's 코멘트



20개의 소비부양 정책에 이어 97가지 여행과 문화소비 촉진 정책까지 연이어 출시 중이다. 예상대로다. 베이징 2022년 동계올림픽 이후부터 70주년 국경절 행사를 앞두고 중국 전역에서 분위기가 띄우는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관광소비 촉진정책의 비공식적인 데드라인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다. 70주년 축하파티를 위해 흥을 돋구는 정책이기도 하지만, 몇 년 뒤 쏟아져 들어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사전 준비 작업이기도 하다.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 중국에 갈때마다 불편했던 모바일 결제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아 편리하게 해준다하니 기대되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번 관광부양은 사실 8월 초 리커창 주재로 열린 국무원 간부회의의 산출물인 듯하다. 그 회의에서 이미 중국 내 관광 소비 확대를 위해 관광지 입장료 감면과 비수기 무료 개방, 공연 관람료 할인등이 심화되어 논의된 바 있다. 국무원 간부회의 이후 크루즈 산업, 야간



식당, 휴일확대 등이 구체적으로 추가되어 대대적으로 공표된 것이다.



향후 중국에서는 관련 상품 개발 확대, 항공편 증대 등도 지속적으로 언급될 것이다. 이제는 요식업과 숙박업, 그리고 면세품과 관련한 정책이 추가적으로 출시될 가능성도 높여져 보아야한다.

4 저축률이 줄었다고? 위어바오와 화베이를 보자

[#화베이 너무 쉬운 소액대출, #모두가 이용, #월급 받으면 갚고, 위어바오로 투자]

- 8/26 人民网

소비의 현 상황



“今天有钱今天花完 明天的事情明天再说? : 내일이 없는 것처럼 소비하지”라는 말에 중국인들의 79.03%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일종의 지연소비 기대심라인데, 이것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중국인평균 신용카드 및 대출관련 카드 보유량이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올 해 1분기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신용 규모는 총 9,743억 위안으로 9년 전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다.

사실 아직까지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 중국의 저축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저축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9 소비자 금융 교육 설문 조사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소비층들은 ‘소득이 있으나 없으나 저축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신화통신과 인터뷰한 95后 xiaoyun이라는 청년은 2년간 꾸준히 일을 했고, 매달 급여는 알리페이로 전환해 일부는 상환할 돈을 상환하고, 나머지 돈은 정기적인 자산관리 또는 연금에 투자하고 있다. 청년은 잔고를 늘리고 싶을때 더 많이 저축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버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요즘에는 Xiaoyun과 비슷한 생각은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제 경제 대학 국제 무역학과 양준 교수는 일반적으로 소비 지연에는 두 가지 주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하나는 미래 지출과 다 양한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 높은 재정 수익을 얻는 것이다. 현재 중국 소비자들은 신세대들이 노동 시장의 주체가 되고 있어 미래를 생각하는 것보다 개인의 현재 삶의 질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동시에 생활 수준의 향상과 사회 보장 제도의 개선으로 세금 감면 및 수수료 감면 정책이 지속되어 향후 고용, 교육 및 건강 관리의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사람들의 전반적인 소비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

Kim's 코멘트

중국의 공식적인 저축률이 감소하고 있는 데는 동의하나, 집계되지 않는 저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싶다. 바로 위어바오(余额宝)와 화베이(花呗). 위어바오는 알리페이가 출시한 온라인 MMF다. 은행대비 수익률이 높고(현재는 3%대) 투자방법이 쉽고, 입출금이 자유롭다. 화베이는 알리페이 사용시 등록된 은행카드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소액대출을 말한다. 중국의 90后들은 현재 위어바오에 저축을 하고, 화베이를 자유자재로 사용한다. 신용소비가 극히 제한되었을 것지만, 신용카드 단계를 건너뛰었을 뿐이다. 7월 말 발표된 <자우링하우의 저금 보고서>에 따르면, 90后的 60%는 위어바오와 화베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5. 돼지님 모시기

[#금돼지, #돼지고기 살 때 신분증 지참, #인당 구매제한도 있음, #오리님과 양님]

- 8/30 经济参考报, 中国经济网.

돼지고기 가격 12주 연속 상승

지난 8월 29일 상무부 대변인이 발표한 정례 기자회견에 따르면, 천정부지로 솟은 중국 돼지고기 가격에 대해 중국정부가 냉동비축육(돼지, 소, 양 등) 공급을 확대시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수입확대를 지속하여 이를 대



고기, 양고기 가격은 각각 킬로그램 당 31.77위안, 60.59위안, 59.31위안을 기록하며 전주 대비 각각 8.8%, 1.4%, 0.7% 올랐다. 그 중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6월 초 킬로그램 당 20.69위안에서 12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추절과 국경절이 다가오고 있어 돼지고기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돼지 도축 기업의 물량 조달에도 어려움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돼지고기 물량을 임팩트 있게 공급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후 전염병 예방교육은 관리 감독과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 언급했다.

구매제한과 보조금 지급... 자동차 산업 얘기가 아니라 돼지고기 정책이다.

홍콩명보에 따르면, 치솟는 돼지고기 가격에 중국 내 29여개의 성과 도시에서는 최근 5개월 간 20억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광둥성, 절강성, 강서성 등에서는 돼지고기 생산 확대를 위해 신규 돼지를 들여오는 양돈장에 마리당 500위안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7/1~12/31)하고 있다. 또한 일부 남부 지역에서는 돼지고기 구매량을 제한하고 있다. 복건성에서는 오는 9월 6일부터 신분증을 들고와야 1인당 2킬로그램으로 제한해서 돼지고기를 살 수 있다. 사면시는 1인당 2.5킬로그램까지 구매가 가능 하다.

Kim's 코멘트

2011년 원자바오 시기에 청이병이 돌았을 때도 중국정부는 모돼지 한마리당 100위안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공급확대에 나섰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때보다 사태가 심각하다. 백신이 없는 가운데, 중국 전역이 비상인 상황인데 하필 지금부터 중추절, 국경절에 이어 내년 춘절까지 중국의 돼지고기 판매 성수기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현재 중국의 CPI 2.8%가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실 돼지고기 가격 상승 뿐만 아니라, 과일가격, 계란가격, 양고기 가격 등 다른 식품 가격 급등도 지속되는 중이다. 4분기에는 이러한 물가부담으로 인한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감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중국정부에서 (무역분쟁 와중에도)미국산 돼지고기도 사고, 최대한 가격안정화에 집중할 것이다. 그러나 그 불똥이 괜히 부동산 시장으로 튈 것 같은 느낌은 뭘까?

6. 증시에 대한 정부의 입장

[#시진핑의 KPI, #너무 풀어주었으니 잠시 감독 좀 할게, #커황반 상장 첫기각]

- 8/28 中国日报, 8/29 金融界, 9/1 新华网

외국인 자금 '풍년'을 기다리는 중국 증시



중국증시가 상승중이다. 8월에도 MSCI는 A주의 비중을 늘렸다. 중국으로 들어오는 자금(北上资金)은 240억 위안 이상이 순유입되었고 120억 위안이 순유출되었다. 순유출의 이유는 일부 자금의 차익 거래 때문이다. 그러나 전일에도 복상자금 112억 위안 가량이 순유입된 것으로 보아 대외 개방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외국자본이 A주 시장으로 진입하는 중이다. 남은 하반기도 마찬가지로의 형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2019년은 외국자본이 A주에 대거 투자하는 '풍년'이 기대된다.

관리감독 강화

지난 8월 28일 증감회는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올 들어 주식 담보 규모가 크게 증가한 9개 증권회사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일 강조된 것은 1)주식 담보 거래 등 철저한 신용리스크 관리 2)리스크 인식과 리스크 관리 수당 충분히 마련 3)엄격한 감사와 투자자동의서 서약률 향상 등이다.

시가총액 '천억위안' 도달한 상장사 86개

동방차이푸에 따르면, 올 8월 28일 종가기준으로 천억위안대의 시가총액에 도달한 기업수가 86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대비 25개나 증가한 숫자다. 천억위안 시가총액 기업 중 특히 올 해 들어 시가총액이 크게 증가한 산업은 비은행 금융(6개), 제약바이오(3개), 전기전자(2개), 은행(2개)로 나타났다.



커황반 상장사 첫 기각

지난 8월 31일 증감회는 에버섹테크놀로지에 대해 커황반 상장 신청을 기각했다. 커황반 준비 단계부터 지금까지의 첫 기각 사례이며, 에버섹은 자료 제출이 미흡하고, 상장 조건에 위배되는 회계상 오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전했다.

Kim's 코멘트

우리입장에서 볼 때 태풍 MSCI가 지나갔다. 큰 타격없이 잘 넘겼다. 중국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외자 패시브자금의 유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물론 위안화의 포치현상이 일정부분 외국자본 유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결국 불안정한 국제정세임에도 꾸준히 패시브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이 이 불안정한 리스크가 안정화되려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폭발적인 상승동력이 될 수 있다. MSCI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글로벌 1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주식시장은 전세계 시가총액의 4% 정도 밖에 안되는 상황이다. 비록 중국의 경제성장속도가 점차 우하향하고 있지만 그래도 6%다. 왜 MSCI가 그렇게도 A주의 편입 비중을 확대하려는지에 대한 답이 될 것 같다.

7. 무역분쟁 중이지만, 미국기업들은 대박난다

[#코스트코 3시간 주차 대기, #테슬라 취득세 면제대상에 전차종 포함]

- 8/19 中国青年报中青在线, 经济参考报

코스트코에 몰려든 중국구매자들



지난 8월 27일, 첫 개장한 미국의 회원제 대형마트 코스트코 상하이점에 고객이 몰려 몸싸움까지 나타나자, 개장 4시간 만인 오후 1시에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 한 언론에서는 '코스트코의 폭발적인 인기로 트럼프가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을 즉시 떠나라고 한 부분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그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테슬라, 중국에서 취득세 면제

코스트코가 중국인들에게 사랑을 듬뿍받았다면, 미국의 전기차 회사 테슬라도 중국정부에게 선물을 받았다. 지난 9월 1일 중국 공업정보화부에서는 취득세 면제 대상인 신에너지 차량 명단을 추가로 발표했고, 그 명단에 테슬라의 전 차종이 모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차량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면제받게되었다. 이에 테슬라는 웨이신 공식계정을 통해 자사 차량 구매 고객은 최대 9만 9천위안을 아낄 수 있게 되었다 언급했다. 참고로 테슬라는 상해에 지난 1월부터 테슬라 전기차 부품공장을 짓고 있는 중이고, 연간 최대 50만대의 전기차가 생산될 예정이다. 이미 중국정부는 테슬라에 외상투자법 통과 이후 1호로 현지 법인의 100% 자본을 보유하도록 했다.

8월30日晚, 工信部发布了最新一批的免征车辆购置税的新能源汽车车型目录。其中纯电动乘用车的目录包含特斯拉的model3、modelX、modelS三款型16个版本。

序号	生产企业名称	车型型号	通用名称	纯电动续航里程 (km)	整备质量 (kg)	辆
65	特斯拉汽车(北京)有限公司	ESD5	Model 3 长续航全轮驱动版	590	1874	47
66		ESDP5	Model 3 高性能全轮驱动版	595	1875	47
67		ESRS	Model 3 长续航后轮驱动版	564	1753	47
68		S100D5	Model S 长续航版	860	2260	82
69		S7SD6	Model S 标准续航版	490	2130	83
70		SF100D5	Model S 高性能版	854	2292	82
71		X100D5	Model X 长续航版	576	2491	82
72		X100D6	Model X 长续航版	576	2491	82
73		X100D7	Model X 长续航版	576	2459	82
74		X7SD5	Model X 标准续航版	425	2387	83
75	特斯拉汽车(北京)有限公司	X7SD6	Model X 标准续航版	425	2387	83
76		X7SD7	Model X 标准续航版	425	2387	83
77		XP100D5	Model X 高性能版	552	2530	82
78		XP100D6	Model X 高性能版	552	2530	82
79		XP100D7	Model X 高性能版	552	2530	82
80		ESRS	Model 3 标准续航升级版	480	1614	94

特斯拉官方对此表示, 最高可节省约9.9万元。另据北京日报, 特斯拉北京门店销售人员表示, 免征购置税不同车型为车节省3至8万元。

8. 기타

[#라면집 늘려라, #9571 친환경 택배 프로젝트, #대비가 필요한 고령화]

- 8/30 人民网, 新华网

란저우 라면집이 60만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9 억명의 노동자가 있고, 올해만 볼 때도 대학졸업생을 포함해 고용시장으로 1,300만명이 나왔다. 또한 중국전역의 성/도시에서 매년 1,500만명의 노동자가 쏟아져 나오고, 농촌지역의 잉여 노동력은 300만명에 달한다. 고용에 대한 압박은 점차 줄고 있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하다. 관련 부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2억명 미만의 숙련된 근로자가 있고, 2.88억명에 달하는 농민공중 초등교육 이하의 교육을 받은 노동자가 70%, 직업교육을 받은 농민공이 30%에 불과하다. 즉 노동



교육의 부족은 기술 혁신을 통해 제조강국을 만들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 질환이다. 이에 관련해 중국 고용관련 부서에서는 '라면경제'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고용촉진법 집행감시팀은 간쑤지역의 '란저우라면 경제'를 예로 들고 이를 확대시키고자 한다. 간쑤지역에서는 란저우라면으로 1)라면점포 관련한 무상 교육, 2)보조금 지급 기업에 대한 보상, 3)빈곤층의 고용 촉진을 시행중이다. 현재 중국 내 3,000개가 넘는 도시에 5만여개의 란저우 라면집이 있으며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중이다. 간쑤에서는 향후 매년 10만명의 라면 전문가를 훈련시켜 '란저우라면'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킬 예정이다.



친환경 택배에 집중하자

최근 중국에서는 '2019년 중국 택배 녹색 발전의 현상학과 추세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보고서에는 중국의 택배업무량은 매해 급증하고 있는데, 포장사용량 역시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 자원소모량과 환경오염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명시했다. 국가우정국부국장 유군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물류 포장 환경 문제에 대해 현재 중국은 '택배 포장 다이어트'를 진행중이고, 올해 들어 그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 녹색물류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백세그룹이 이를 대표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백세그룹은 모든 사이트에서 친환경식물성 PE봉투 'Nbag'을 사용중이고, 이를 통해 매년 900톤의 비닐 사용을 줄이고 있으며 903톤의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였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추세를 따라 우정국, 순평택배, 징동물류 등의 회사들은 줄을 지어 녹색포장실험실을 만들고 있다. 유군은 현재까지 1만개가 넘는 우정 택배사이트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택배기업들은 2단계 가량의 신재생에너지자동차 도입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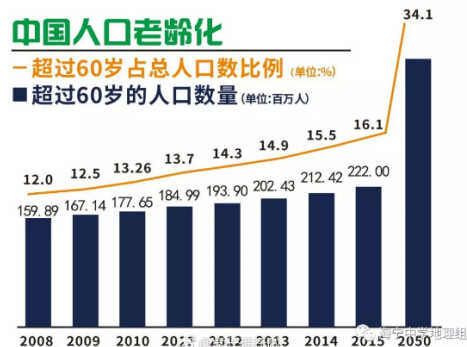
녹색 포장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추진 중이다. 올해 연 초부터 국가우정국은 '9571과정'을 추진 중에 있다. '9571과정'이란 2019년 말까지 전자운송장 사용률 95% 이상, 전체 상품의 50% 이상에 대해 2차포장을 하지 않도록 할 것, 화물 집결지에서 재사용 가능한 행낭가방 사용률 70% 이상, 우정택배영업사이에 포장 폐기물 재활용 장비 설치 1만개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는 이미 반 이상 달성하여 올해까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공급의 상하위 계열에서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녹색 포장의 원가가 높아 수익률이 떨어져 대규모 보급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의 협력이 절실하다.



고령화에 대비하자

고령화는 인구 발전의 필연적인 추세이자 전세계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고령화가 비교적 많이 진행된 국가 중 하나이다. 시진핑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수많은 노년층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인구고령화가 야기할 사회 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하는 것이 전반적인 국가 발전과 국민의 복지에 연관된다고 지적했다. 당의 19대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양로 정책 체계와 사회환경을 구축하며, 의료의 결합을 추진하며, 노령사업과 산업발전을 가속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인구 고령화에 '중국만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018년 말 현재 중국 인구는 13억 9,538만 명으로 이 가운데 만 60세 이상 인구는 2억 4,94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9%에 이른다.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025년에는 3억 명, 2035년경 4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고령화는 노동력 공급의 지속적인 위축과 노후 부담의 빠른 증가를 초래하며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중국이 직면할 미래와도 같다. 노인인구 부양 비율의 빠른 상승은 연금 지급 압력 및 사회 의료 비용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노후 서비스 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중요한 전략적 행동이다. 제 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인구 고령



화 대응, 사회양로서비스 체계 구축 가속화, 노후서비스산업 발전 등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한 바가 있다. 또한 올해 정부 업무 보고에서는 커뮤니티 양로서비스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다층적 노후보장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를 방향 삼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인구 고령화 대처 방안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하며 노인 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고 노인의 존엄과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1)출산정책에 대한 보완과 다출산 장려, 2)퇴직연령 연장

노인인력 개발 촉진 방안 연구, 3)양로보험제도의 보완 및 정비, 4)양로서비스의 공급책 구조조정이다. 이 외에도 고령화 산업기술 혁신으로 공급 수단의 다양화와 확실한 기반을 다져야 하며 동시에 장기 간병보험제도 수립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한다.



II

무역분쟁 장기화 고려,
이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 시키려는 중국

무역분쟁 장기화 고려, 이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 시키려는 중국

미국기업 들어와!!!

코스트코에 몰려든 인파... 단순히 개점 기념 할인 때문일까 싶다. 작년말 캐나다에서 화웨이 멥완저우 부회장이 기소되었을 때에도 북경시 1호점 문을 연 캐나다구스 매장 앞에는 고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중미간의 무역분쟁은 아직 감정의 골이 깊진 않나보다. 분명 일부 언론통제가 가능한 중국에서 미국제품의 대한 불매운동이 나타나도 시원치 않을 판에 테슬라에게도 선물을 안겨주고 있으니 말이다.

테슬라는 올 초부터 우리돈 8조 5천억원을 들여 중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 외자기업으로는 처음으로 100% 단독출자다. 무역분쟁 중 중국시장으로 거침없는 투자에 나선 테슬라에 중국정부는 화답했다. 지난 1일 친환경차 취득세 면제 대상 리스트에 테슬라의 전 차종을 포함시킨 것이다.

올 들어 중국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릴레이 외자유입 정책’

이미 중국에서는 외자기업 유치를 위한 법을 바꿨다. 지난 3월 전인대를 통해 新외상투자법(이하 신외투법)이 공포되었고, 2020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중국의 기존 ‘외자3법(외자 기업법, 중외 합자경영 기업법, 중외 합작 경영 기업법)’이 폐지되고 ‘회사법’과 ‘합명기업법’이 적용된다. 새로운 법의 핵심에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술 강제이전 금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신외투법에는 특정 지방정부가 외국 기업과의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손실 보상을 명문화시켜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은 지방정부와의 계약이 조금 더 투명할 수 있도록 했다.

외상투자법

중점내용

- | | |
|---|---|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거티브리스트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를 진행하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처리함. 심사가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현재 네거티브 리스트는 총 48가지 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기업의 투자가 제한되거나 당국의 심사가 필요한 부분임 - 외국자본의 진입허가 심사 과정에 ‘네거티브리스트’ 및 ‘국민 대우’ 도입 : 이는 외국 투자자에게 더욱 개방적이고 안정적이며 투명한 자본시장을 조성한 것 |
| 2 | - 공평한 경쟁시장 제공: 중국 내자기업이 받는 모든 혜택을 외자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 |
| 3 | - 외자기업의 권리 보호 강화: 외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함 |

자료: 중국상무부, DB금융투자

그리고 지난 7월 22일 거래가 시작된 커창반 시장 역시 외자유입을 염두해 둔 정책이다. 커창반의 상장되는 기업들이 외국자금이 좋아할 만한 기업들로 꾸려지고 있다. IT와 바이오, 그리고 공유경제, 4차산업 관련 기업들이 커창반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중국주식시장의 문제점(긴 상장대기 시간, 불투명한 상장심사, PER 23배 이하로만 산정해야하는 기업가치, 너무 높은 개인투자 비율, 유니콘 기업의 상장 방법 부재 등)을 보완하고 있다. QFII가 집중할 수 있는 시장이다.

또한 자유무역지구도 확대중이다.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자유무역시범구 6곳을 신규로 지정했다. 산둥, 장쑤, 광시, 허베이, 윈난, 하이룽장성이다. 현재 중국의 자유무역 시범지구에서는 세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각종 면세 혜택을 부여해 무역을 극대화시키도록 하고 있다.

자유무역시범구 1+3+7+1+6구도

시기	지역	공통혜택	지역혜택
2013	상해	-중국자본 지배규정 철폐(해운, 인프라, 영화 등 문화부문)	부동산 구매 제한 규제 완화
2014	광둥, 텐진, 푸젠성		
2016	랴오닝, 저장, 허난, 후베이, 충칭, 쓰촨, 산시	-통신분야외자투자 규제 취소	
2018	하이난	-농업, 광업, 제조업 외자진입 확대	중국 여행객 면세 소비 시행. 1인당 면세 한도 3만위안
2019	산둥, 장쑤, 광시, 허베이, 윈난, 하이룽장		

자료: 중국국무원 DB금융투자

무역분쟁 장기화 고려, 경제 충격 최소화시키려는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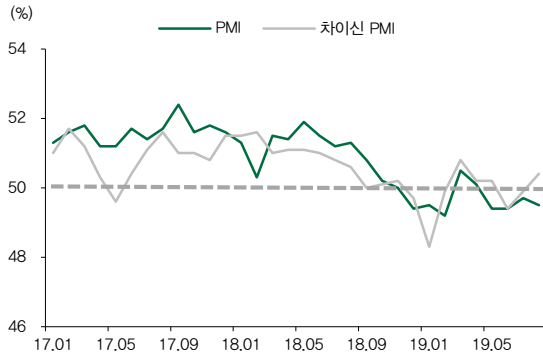
위안화 포치 이후 우려했던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다. 중국정부가 총력을 기해 외자를 유치시키고 있다는 점도 급격한 위안화 평가절하를 방어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외자 유입정책은 (홍콩 대신) 중국 본토에 신뢰도 있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이는 중국정부가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것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펴고 있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70주년 생일 잔치를 앞둔 중국이 대외정치적으로 강한 기조를 나타내고, 대내경제적으로는 완화된 부양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기존의 시각은 유지한다.

이제 우리 기업들은 대중국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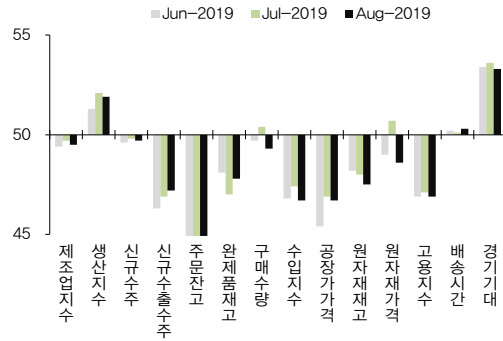
[이번주 눈여겨 봐야 할 그래프]

제조업 지표의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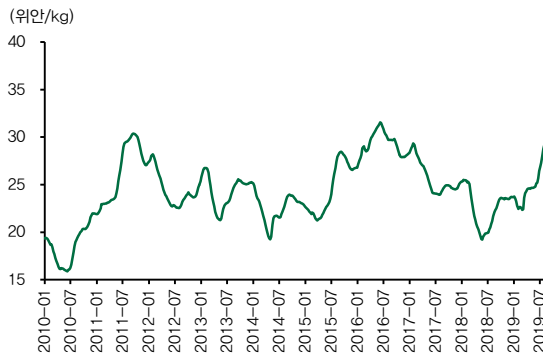
자료: WIND, DB금융투자

항목별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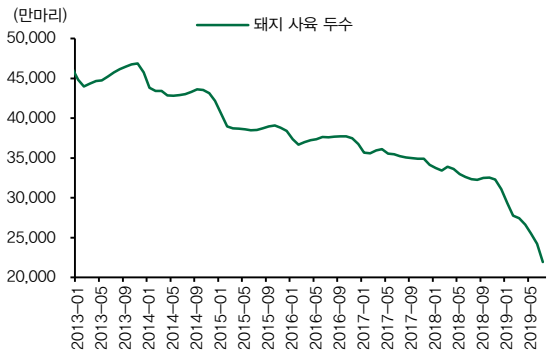
자료: WIND, DB금융투자

돼지고기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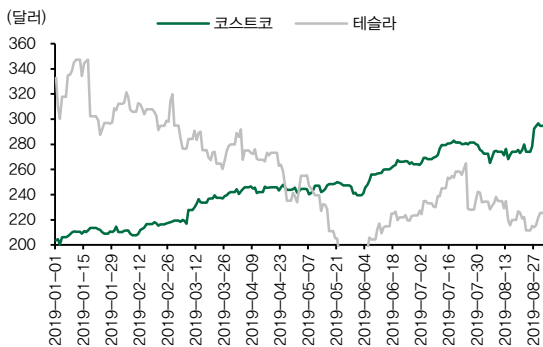
자료: WIND, DB금융투자

돼지 사육두수



자료: WIND, DB금융투자

코스트코, 테슬라 주가 추이



자료: WIND, DB금융투자

위안화



자료: WIND, DB금융투자

현지 목소리(컬럼)

[사설1. 부동산 시장에 대한 중국의 생각]

[사설2. 무역분쟁에 대한 중국의 생각]

[사설1] 부동산 시장에 대한 중국의 생각 [9/2 예탄]

对不起扛不住了!房价 真跌了!

(못 버텨서 미안하다, 진짜로 떨어지는 부동산 가격)

8월 25일, 광저우 부동산이 하락 중이다. 광저우 Plus 통계에 따르면 8월들어 광저우의 11개 구역의 주택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70개 대형 및 중형도시의 부동산 가격 데이터에 의하면 광저우의 주택 가격은 이미 5월부터 하락하고 있다.

며칠 전, ‘전례 없는 부동산 압력, 이 도시들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칼럼을 봤다. 해당 칼럼은 현재 4개의 1선도시 중 광저우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제일 크다고 분석했다. 국가발전과 금융실험실의 데이터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상으로 보았을 때 2019년 상반기 광저우의 평균 신축주택가격의 대출금 비율은 77.7%로 심천을 넘어섰다. 이는 4개의 1선도시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광저우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연초부터 4월까지 급상승하였다. 주요 원인으로 2018년 연말부터 2019년 연초까지 전국 부동산 시장이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1월과 4월, 광저우 시에서 인재정책을 내놓으면서 해당 인재에게 주택 보조를 해준 것 또한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2019년 1월, 광저우는 학업형 인재의 연령 제한을 5세까지 풀었다. 더불어 해당 년도의 졸업생 또한 바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그리고 2019년 4월 28일, 광저우는 인재정책에 대한 갈망을 버리지 못 하고 또 다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 광저우시의 인력자원부와 사회보장국의 홈페이지에는 ‘광저우시의 인재 입주 관리 방법 시행 세칙’에 관한 사항들을 발표했다. 석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에게 입주자의 사회보장년도 제한을 풀어주고 6개월간 사회보장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술되어 있다. 본과 이상은 6개월의 사회보장금을 납부한다면 입주가 가능하다.

4월 19일 정치국의 ‘주택은 투기용이 아닌 거주용이다’라는 기조가 다시 언급되자 광저우부터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지난 7월 정치국은 더 이상 경제 자극을 위해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 광저우는 어쩔 수 없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

광저우 현지 소식에 따르면 7월부터 광저우의 모기지 금리는 소폭 상승했으며 최근 2달 동안 은행에서는 모기지 금리를 하향 조정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광저우의 19개 은행의 주요 금리 중 신규주택 모기지 금리는 10%, 다주택자 모기지 금리는 15%까지 상승했다. 2019년은 여느 때와 다르다. 경제는 점점 약해지고, 무역은 점점 어려워지며, 부동산 시장은 점점 조여온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시장 정책이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것이 광저우 입장에서 보면 다행이다.

그러나 광저우의 부동산 시장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비록 주택시장의 열기는 식었지만 아파트 시장의 열기는 다르다. 화하시보에 의하면 2019년 7개월 동안 광저우 아파트 시장 거래규모액은 작년과 재작년을 훨씬 뛰어넘었으며 거래면적만 90만제곱킬로미터에 다다르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5% 상승한 수준이다. 7월 한 달 동안 광저우의 아파트 거래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했고 2019년 연중 동안 3번째로 많은 거래액을 달성했다.

‘주택은 투기용이 아닌 거주용’이라는 기조 아래, 주택의 제한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조건 또한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는 이와 정반대이다. 2017년 3월 30일, 광저우는 개인이 아파트를 사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정책을 냈었다. 그러나 2018년 연말에는 그 제한을 풀어 개인에게도 상업형 아파트 구매를 허가했다. 아파트는 소형분양주택이 주력 상품이다. 소형분양주택은 고수익률을 보장하고 임대료 수익률이 5% 정도 되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주 좋은 자산 중에 하나이다. 게다가 구매해도 없고 신규 주택 구매 대우 등을 누릴 수 있으니 아파트가 열기를 띄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것이다.

필자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지만 향후 20년 동안 부동산시장의 황금시대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소한 기회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올 것이다.

광저우는 앞으로 웨강아오 대만구 개발 계획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충분한매력이 있다. 광저우는 단기적인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사설2] 무역분쟁에 대한 중국의 생각 [9/2 인민일보]

美方不断升级关税威胁伤人害己

(미국은 관세를 계속 올리고, 타국을 위협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

미중무역분쟁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반격에 나서면 안되고 저자세를 취하여 미국 측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이는 명백히 틀린 주장이며 유지하고, 유해한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이 생기는 이유는 미국인에게 무역분쟁은 제로섬 게임이며 미국인이 기괴한 패권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역사 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 이래로, 한 국가의 GDP가 미국 GDP의 60%를 넘으면 미국은 강하게 제재를 가했다. 지금까지 일부 미국인들은 중국을 전략적인 적수로 보고 있으며 중국의 빠른 발전은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이라 간주한다. 일부 미국인들은 중국이 적당히 양보한다고 해서 자신의 패권을 지키려는 목표를 바꾸지 않을 것이며, 끝이 없는 욕망을 가지고 중국의 발전 추세에 완전한 제동을 걸려고 할 것이다. 중국이 양보만 하면 미국 측이 멈출 것이라는 의견은, 미중무역마찰의 근본적인 원인과 미국 패권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미중무역분쟁에 맞서기 위해서는 싸움에 가담하여야지만 이 싸움을 멈출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양보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적당히 양보하자는 의견을 가진 자들은 대개 중국은 미국보다 약하니 미국과의 분쟁에서 반드시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미중무역분쟁이 중국 국내 대외무역개방과 기업경영생산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이로 인해 경제 하방 압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멀리 보았을 때 이러한 영향은 전체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며, 중국 경제 발전의 우수함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다.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지도와, 완벽한 공업체계, 끊임없이 최적화 되는 경영환경, 내수시장의 규모 확대, 나날이 완벽해지는 인프라 시설은 세계 경제 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낸다. 이는 모두 중미 경제무역 마찰에 대비하는 중국의 자신감과 자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기본적인 도의와 규칙을 수호한다는 범위 내에서, 중국은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미국인은 다자무역 규칙을 무시하고 여러 국가를 상대로 일방적인 관세를 높였다. 또한 시장 규칙을 기반으로 둔 전세계 산업체인에 간섭을 하고, 전세계자유무역기초와 경제의 글로벌화를 해쳤다. 이는 세계 경제에 커다란 리스크를 만들고 평온하게 돌아가던 국제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근거로, 미국은 도의(명분)를 상실하였고 중국은 도의(명분)을 얻었다. 도의에 맞으면 도와주는 이가 많고, 도의에 어긋나면 도와주는 이가 드물다. 정의로운 쪽은 정의를 지키며, 불의에 맞서 단호히 싸워야 한다.

역사적으로 미국에 라이벌로 몰리며 탄압을 받던 나라 중 일부는 미국에 한 발 물러섰지만 정작 미국에게서 '관대함'을 돌려받지 못해 발전의 기회를 놓쳤었다.

더 깊게 보자면, 일부 미국인이 국제사회에서 하는 행동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 행동에 대해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미국은 자국을 ‘사심 없는’, ‘자유를 수호하는’ 국제적인 지도자 역할로 꾸며왔었다. 그러나 일부 미국인의 행동으로 인해 이러한 이미지는 자국의 이익을 쫓아가기 위해 이기적인 계산으로 만들어 낸 행동이라고 드러났다. 그는 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와 국제 정치의 질서를 훼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만들어 낸 자국의 이미지 또한 파괴하고 있다.

중국이 미중무역분쟁을 대하는 입장과 태도는 일관적이다. 싸우고 싶지 않으나 싸우는데 두려움이 없으며 필요 시에는 맞서 싸울 것이라는 태도이다. 중국은 미국의 경제무역분쟁 위협으로 인해 겁 먹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울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여전히 나라와 나라 간에 평등한 대우와 상호 간의 양보만 있다면 협상 못 할 문제는 없다고 믿는다. 중국은 계속해서 상호 간의 존중과 공명정대, 공동의식을 기반으로 만드는 국제관계를 만드는데 힘 쓸 것이다.

Compliance Notice

- 자료 발간일 현재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한 종목들의 IPO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내용은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발행주식수 변동 시 목표주가와 과리율은 수정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MEMO





Research Center

자본/자산시장 장화탁 센터장 02)369-3370 mousetak@db-fi.com



자산전략팀

담당 애널리스트 02)369- @db-fi.com

글로벌크레딧 유승우 팀장 3426 seyoo

채권전략파트

채권/FX전략	문홍철 파트장	3436	m304050
경제	박성우 수석연구원	3441	p3swo
신용분석	이혁재 선임연구원	3435	realsize84

주식전략파트

주식전략	강현기 파트장	3479	hygkang
중국/신흥국	김선영 연구위원	3438	tjs00dud
퀀트/해외주식	설태현 수석연구원	3709	thseol
RA	강대승 연구원	3437	bigwin92



산업분석1팀

은행/보험 이병건 팀장 3381 pyrrhon72

RA 정광명 연구원 3746 Kmc92

시클리컬파트

조선/기계/철강	김홍균 파트장	3102	usckim10
건설/간접재/부동산	조윤희 수석연구위원	3367	uhno
화학/정유/유틸리티	한승재 수석연구원	3921	sjhan
RA	정재현 연구원	3429	kevinj

크로스융합파트

원자재/스몰캡	유경하 파트장	3353	last88
비상장기업	남기윤 연구위원	3387	kqnam
생활용품/의류	박현진 수석연구원	3477	hjpark
Mid-small caps	구성진 선임연구원	3428	goo
Mid-small caps	유현재 선임연구원	3369	Jay.yoo



산업분석2팀

IT총괄 권성률 팀장 3724 srkwon

ICT자동차파트

반도체	어규진 연구위원	3713	kjsyndrome
자동차/운송	김평모 수석연구원	3053	pmkim
통신서비스/미디어	신은정 선임연구원	3458	ej.shin
RA	권세라 연구원	3352	serakwon9494

헬스케어컨슈머파트

음식료/유통	차재현 파트장	3378	imcjh
제약/바이오	구자용 연구위원	3425	jaykoo
엔터/레저/인터넷/게임	황현준 수석연구원	3385	realjun20



본 사

본사 영업부 02) 369-3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 (DB금융투자빌딩 1~2층)

대전 · 충청지역

대전 042) 522-660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59 (고운손빌딩 2층)
 천안 041) 569-7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9 (에이엠타워 2층)
 청주 043) 253-9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205번길 57 (WM타워 5층)

서울지역

강남금융센터 02) 3474-9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41 (삼원빌딩 3층)
 DB금융센터 02) 3011-5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빌딩 3층)
 청담금융센터 02) 514-14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4 (원일빌딩 2층)
 목동금융센터 02) 2636-6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기독교방송 1층)
 압구정금융센터 02) 3445-88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76길 14 (증권빌딩 2층)
 을지로금융센터 02) 753-9000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3층)
 잠실 02) 419-62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 다길 42 (루터회관 1층)

부산 · 경상지역

남포 051) 242-6000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 90 (남포메디칼센터 2층)
 부산 051) 515-6200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 353 (BNK부산은행 2층)
 센텀 051) 741-72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 (대우트림프스퀘어 2층)
 양산 055) 388-0900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역6길 9 (BYC빌딩 204호)
 창원 055) 600-55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20 (더시티세븐 3층)
 대구금융센터 053) 476-4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99 (호연빌딩 2층)

경기지역

분당 031) 718-7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2 (보명프라자 4층)
 인천 032) 518-3434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3 (메디캐슬빌딩 2층)
 평촌 031) 382-62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4 (하나은행빌딩 4층)
 진접 031) 572-402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천로 20 (광장빌딩 3층)
 화성향남 031) 366-090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삼천병마로 216 (중앙빌딩 3층)

광주 · 전라지역

광주 062) 655-3400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64 (삼환빌딩 4층)
 전주 063) 229-221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40 (효자메디컬프라자 2층)

강원지역

강릉 033) 641-8629 강원도 강릉시 울곡로 2845 (성호빌딩 3층)
 원주 033) 765-9400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06 (리더스타워 3층)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